

2010년 4월 21일 사랑의 소리.

작성일 : 2010. 03. 12. (금) 저녁 9 :40경

작성자 : 김은진 (대구스타교회)

안녕하십니까? 대구스타교회 김은진입니다

2010. 03. 12 금요성령집회 때

[주님께 사랑고백을 하며 진정 제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.

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.]

* 하나님 말씀 *

사랑아.

내 심정 내 마음 소리에 귀 기울여,

가만히 내가 너희에게

고백하고 들려주고픈

내 사랑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.

가만히 눈을 감고

진정 나의 그 사랑을 느끼고자

정신 집중하여 가만히 눈을 감고

귀 기울이면 들릴 것이다.

출렁이며 달을 듯 말듯 찰싹 거리는

시원하고도 깊은 파도소리,

숲속의 바람이 불 때 사락사락 들리는

나뭇잎의 마주 부딪쳐 나는 그 소리,

졸졸 흐르는 시내의 그 조용하고도

청아한 소리,

많은 만물과 동물의 지저귀는 소리,

서로서로 사랑을 하며 내는 그 소리,

또한 비가 내리며 내는 빗소리의 화음 등

많은 만물들이 나의 사랑을

그들의 모든 것 사용해

내 사랑을 표현하는 구나.

그 누구도 나의 그 사랑 표현기에

따라 할 수도 도달 할 수 없음은

내 사랑 측량기 힘들기 때문이다.

내 사랑의 일부분들을

잘 표현하였구나.

진정한 사랑, 내게 너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,

모든 내게 간구하며

나아오며 찬양하며,

주여 부르는 너희…….

진정 아름다운 노랫가락 되어

내 귓가에 맴도는 구나.

사랑과 기쁨과 그 모든 역사.

진정 나와 함께,

나와 너 한 쌍이 될 때

이루어지는 것이니라.

사랑하노라 나의 심정의 내 사랑들아.

이 세상의 어떤 악기보다

어떤 만물보다 너희가 더 아름다움은

내가 너희 개개인의 성대를 통하여

각각 개성대로 준 악기의 소리

즉, 너희의 목소리로 내게 찬양하고

간구하는 그 소리,

내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소리

내게 모든 것 구하며

내게 일체되길 힘쓰는

너희 모든 입술의 말 들이

진정,

진정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

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소리이구나.

그 소리로 인해 내 마음 정화되고

내 심정 진정 뜨거워지는구나.

내가 너희에게 목소리와

언어와 모든 음성 박자 등

모든 것을 줌은

내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

만들고, 너희에게 준 선물이니라.

그런데, 그 내가 준 사랑의 선물로

내가 아닌 자기들끼리의

사랑을 말하고,

오히려 나를 등지고 부인하는 말을 하고

내가 사랑하는 자들까지,

나를 사랑하는 자들까지

함부로 말하고 욕함으로

그 모든 마음에 대못을 박는구나.
누가 그 입으로 죄를 짓느냐?
진정 회개하여 나아오라.

나 주 여호와.

오직 너희 마음 정결케 하여
오직 내 사랑을 표현 하고 고백하여라.

(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
만물들도 혼자서 다 표현 못하듯이
우리도 서로 하나 될 때 그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
을 깨달았습니다.)

진정 그리 할 때 너희의 마음
또한 너희의 심정의
모든 것이 치유되고 파스해지며
사랑이 넘침을 알게 될 것이다.
왜냐하면, 내가 그리되는 이치로
창조하였기 때문이다.

너희의 그 마음과
그 사랑으로 내게 나아와
매일 매일을 나를 기쁘게 하며
나의 영광을 찬송 할지어다.

모든 만물도 나의 영광과
사랑을 개성대로 찬양하고 있는데
이 천국에서도 나를 찬송하고
찬양함이 끊이지 않는데
너희는 내게 그 모든 것,
찬양드림이 적구나.

진정 지금의 상황과
자신의 현 상태를 진정 깨달고
내게 나아와 나를 찬양함을
삶 가운데 할지니라.
사랑한다.

너와 나의 사랑의 듀엣 곡 부르면
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.
너와 나의 마음 일체되어
사랑으로 대화, 고백할 때가 그것이니
너희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
나와 일체 되길 힘쓰며 나아가자.

사랑하노라.
진정 너희 가운데 늘 끊임없는
사랑을 하길 원하노라.
사랑한다. 늘 함께하자.

늘 너희에게 내 사랑을 노래하는